

# “목판화로 보는 석굴암”

## 정비파씨, 본존불등 38점 최초 판각작업 초파일경 조계사 전시... 해외전도 계획

종교심과 예술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계 최고의 예술품중 하나로 꼽히는 석굴암. 석굴암은 그간 수없이 그림과 조각, 판화, 사진 등 조형예술의 원천이 되어 왔지만 대부분 본존불이나 십일면관음상등 일부에 그쳐 왔다. 그런데 목판화가 정비파씨(42)가 석굴암 조상 전체를 목판화로 옮기는 큰 임무를 세우고 새해를 맞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존불 등 석굴암내 조상(彫像) 38점이 최초로 대형 목판화로 태어나고 있는 것.

“불심 깊은 외할머니 등에 업혀 가던 5살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석굴암에 갔습니다. 앞으로도 시간만 내면 가 볼겁니다. 토함산 오르는 길에 포장 안되어 있을 때는 아침에 떠나면 해가 질 저녁때나 되어 석굴암에 도착하지만 부처님의 신비스러운 미소를

대하면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석굴암은 나의 뇌리에 박혀져 있어. 유리로 막혀져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중에 문득 불 보살님들을 세상속으로 나가게 해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심정에서 각각의 원(願)을 세웠습니다.”

제작년부터 구상에 들어가 스케치를 끝내고 본격적인 판각에 들어간 것이 지난해 6월. 현재 사천왕, 팔부중상, 보살상, 범천 제석천 금강역사상 등 모두 20상이 완성됐다. 본존불, 십대제자, 감실부처님 등 18상이 남아있다. 실물원형은 30% 정도 축소해 판각하는 작품들은 모두 160cm가 넘는 대형 작품들이고 신비로운 미소와 정교하고 유려한 선을 그대로 재현시키고자 노

력해 불 보살들이 여기저기 서 있는 그의 작업실(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들어가면 마치 석굴암처럼 성스러운 분위기가 향불처럼 퍼져온다.

“매일 백팔찬회기도를 올리고 작업에 임하다보면 마치 나와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걸 느낍니다.”

각 불보살상 뒷 배경에는 송강가사체로 ‘능엄심주’를 써 넣을 예정이다.

3월까지 판각을 마치고 초파일을 전후해 조계사에서 대대적인 전시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전시가 끝나면 부산 대구 경주와 해인사에서 전시를 갖고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전시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국토기행” ‘흙 냄새·부처마음전’ 등 그동안 개최한 개인전 제목에서처럼 우리 민족의 토속적인 모습과 정체성을 찾는 목판화작업을 주로 해오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온 정비파씨. “다음 주제는 어둡고 고달픈 시대에 중생들을 구원해 준다는 미륵상입니다.”



이경숙 기자  
◇석굴암내 조상 38점을 대형목판화로 옮기고 있는 정비파씨.

### 불심시심 (113)

온갖 사물은 사람에게 달렸다

柳眉風動心搖樹 버들눈썹에 바람 불자 마음은 나무 흔들고  
(유미풍동심요수)  
谷口雲生性起塵 골 어귀 구름 뜨니 본성에 먼지 인다  
(곡구운생성기진)  
莫把頭頭看外事 닥치는 모든 일 몸 밖의 일로 보지 마라  
(막파두두간사의)  
須知萬像屬真人 온갖 물상은 참 사람에 속한 줄 알아야.  
(수지만상속진인)

위 시는 목암대사의 시로, 선달 그림(除夜)에 읊는 4수 중 하나이다. 선달의 그림이란 해를 다하는 날이니, 내일 이면 새해라는 희망의 부푼이 있기에 앞서 지난 한 해의 반성으로 매듭하는 것이 일상의 상례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제이라 한 시에는 어느 누구나 한 해의 반성에서 시작하여 인생의 전반적 되돌아봄의 회고 시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위 시는 그러한 일상적 회고나 뒤우침에서는 거리가 먼 듯이 느껴진다. 개인적 삶의 회고라기보다는 인생의 수양적 삶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느낌이다. 사물을 외적 존재로만 인식하는 속인에게 외모에 구애되지 않기를 바라는 스님의 염원이 담겨 있다 하겠다.

버드나무에 바람이 불 때 내 마음은 나무가 되어 흔들린다. 나무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림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이니, 비록 나무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렸기에 저 흔들림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만을 보고 바람이 움직인다고만 보지 말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만을 보고 바람도 움직인다고 보아야 한다.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 한 해능선사

의 이야기가 연상된다. 골 어귀에 이는 구름을 보고 내 본성에도 먼지가 일었다 함을 의식하는 것이 수도인의 자세다. 이렇듯 일상의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나와와 인과적 유기성으로 반성하자는 선 수행의 요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사물의 존재나 자연의 변화가 나와는 무관한 것 같지만 나와 자연 사물이 동일 공간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무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사물이 불심으로 묶여 있음을 의식하는 태도요, 그것이 바로 삶의 주체가 나라면 주제인 나로서 주변의 사물을 나와 유관한 것으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주제로서 주체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 된다. 이것을 인식한 그가 바로 참 사람이요 알게 모르게 진인(眞人)이라 할 것이다. 본 시에서는 이러한 절대적 진리의 해석을 좀 유보하더라도, 일반적 시어적 결합으로도 음미해 볼 수 있다. 버들잎과 마음의 동일시, 구름과 성품의 동화는 시어적 구사로도 일정 수준을 뛰어넘었다 하겠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 “문화재 관리도면 공개합니다”

### 관리국, 1269건 수록... 훼손 사전방지 한몫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구역(보호지역 포함)을 지형도에 표시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도면’이 제작돼 일반에 공개됐다.

문화재관리국이 한국지도원에 의뢰, 96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제작한 이 관리도면은 총 1천2백 69건의 국가지정문화재(부동산문화재)를 5천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하고 있다. 도면제작에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등재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마련한 바 있어 각종 개발 계획 수립시 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재지역 저속 여부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관리도면을 건설교통부, 시·도지사, 시·군·구 등 관련기관에 보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문화재 관리내용이 표시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일반인의 열람요청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관리도면을 전산화해 CD롬으로 제작, 과학적인 문화재 관리에 역점을 둔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시·도 지정 문화재는 해당 시·도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윤기석 기자



◇홍성을 문화재관리도면. 빚긋친 부분이 문화재 소재지역이다.

### 화제의 전시

#### 갤러리사바나 가나아트스페이스 호랑이展

용맹스럽고 강인한 호랑이, 우리 민족과 너무나 친근한 호랑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늘봄하늘서도 익살맞고 다양한 호랑이모습을 감상하며 무인년 새해를 열어보면 어떨까.

24일까지 서울 갤러리 사바나(02-736-4371)에서 열리고 있는 ‘호랑이展’에는



◇임효작 ‘호랑이’ 부조.

김기창 김석 박수룡 사석인 임효 등 화가들의 익살스런 호랑이, 기하학적인 선으로 조형성을 살린 호랑이, 테라코타로 만든 호랑이, IMF시대의 호랑이 등 다채롭게 묘사된 18점의 호랑이를 볼 수 있다.

가나아트 스페이스(02-734-1020)는 15일까지 제1회 산신호랑이전을 연다. 산신학회(회장 조자룡)가 주관하는 산신호랑이전에는 송구대씨가 복사실재한 산신탱화 등 1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한편 한국전통공예미술관(02-734-0132)은 31일까지 호랑이까지 실장생 화조를 6백여점의 민화를 전시 판매한다. 또 매일 까치호랑이가 그리기 시범을 보여 민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 시집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율송스님 펴내

### 일엽스님 유고詩·법문 ‘접할 기회’

개화기 최초의 여류문인으로, 자유연애론과 신정교론을 주창한 여성해방운동가로, 우리나라 근세불교의 결실한 선승으로,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김일엽스님(1896~1971)의 문학과 사상의 진수를 담은 시집 《당신은 나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문화사랑)가 출간돼 화제다.

60년대 초반 세인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수상집 《청춘을 불사르고》의 저자 일엽스님의 이번 시집은 스님의 손상적인 수덕사 환희대 율송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유고와 기존 문집에 수록됐던

시를 엮어 펴낸 것.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일엽스님의 시를 집대성하여 시인으로서는 면모를 살펴보고,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바로 잡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시집에는 ‘나’ ‘님과 고적’ ‘알거든 나서라’ 등 일엽스님의 깊은 성찰과 사색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50여편의 시문과 방대한 사상이 집약된 금교육조의 법어들이 들어있어 시대에 따른 일엽스님의 시세계 전반을 감상할 수 있다.



◇김일엽스님

## 러 하바로브스크 출토 불상 ‘고구려’



러시아 하바로브스크 인근의 코르사코프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동불상(사지)이 고구려식 불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영호교수(한국고원대 박물관장)는 지난해 12월 22일 고구려연구회 정기학술회에서 ‘고구려 금동불상의 신례’를 통해 “하바로브스크 인근지역에서 출토된 이 불상은 6.9cm의 소형불이나 각부의 양식과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구려 금동불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눈직한 목계, 두툼한 눈두덩, 가름하면서 네모에 가까운 상호, 단조로운 의문, 원추를 거꾸로 놓은 듯한 대좌 등이 고구려 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법의의 좌우 의단(衣端)이 펼쳐지지 않은 점이 다른 고구려 불상들과 다르나 말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이 지역이 고구려 혹은 발해의 불교 문화권에 속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1580
진주지사	0591-747-0106
예산 불광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

### 권 육신통(육경신)도통·정진법회 권

대도 무위진인 육신통 대웅맹정전에 입문하시어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잠열한 氣를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마집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웅맹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잡신 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고 三日 眞人出 六神通通奇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通禪(仙)人出 소림사에서 직승하는 도장경종의 육경신 주문과 기문문답 심기선법·올마니반대춤·참선 10장 생법 강의·풍수지리및 동양철학 특강·개인지도.

「경신에는 정오시에 천가지목과 밤자리에 천군이 열려 대도인의 진인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이날은 수미산 제석 천궁의 신선들과 제석천왕이 옹호하며 팔만사천 신종과 팔만사천 제대성중과 팔만사천 산신들과 천지이치 음양선들이 이 주문으로 하여금 행복을 받을 수 있고 득도할 수 있는 비전의 주문입니다.

입제일 : 98년 1월 12일 음 (11.14)  
해제일 : 98년 1월 13일 음 (11.15)  
회비 : 5만원. (1박 2일 침식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80-188(구모자원고개 하차)  
전화 : (휴대폰) 017-236-3110  
02-821-6622 (0)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 대한불교 조계종 추천도서

## 어린이 불교성전

강석주 스님 증명  
법정스님 감수

- 어린이 법회용
- 재미있는 그림
- 어머니와 함께 보는 경전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고급인장 · 369쪽 · 값 : 9,000원

출판·운주사 · 720-9372~3, 735-9170  
법보서는 법린사(02-733-5322)로 문의하세요.

도서출판 **다아**  
Tel 267 · 8101 Fax 263 · 3002

佛紀 2542年 謹賀新年

##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 종정 한구하

의장 정희수

##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희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21  
☎ (032)422-2066~7 / FAX (032)422-0413

서울 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101호  
☎ (02)730-0798~9 / FAX (02)722-3205